

- 과목명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해교육론
- 이 름 :
- 아이디 :
- 과제명 : 세종한국어3의 14단원 중 한 단원을 선택하여 '듣고 말하기' 페이지의 1,2,3번의 듣기 전 활동을 개발합니다. 학생에게 배부할 부교재 형태로 개발하고 해당 듣기 전 활동의 의도와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봅시다.

1단원 P.18

듣고 말하기

1.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 차옌 씨는 학생이에요. O X
- 미라 씨는 중국어를 공부해요. O X

2.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 탄완 씨는 사업가예요. O X
- 아사코 씨는 관광 안내원이에요. O X

3.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 마리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해요?
- 마리 씨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듣기 전 활동

1. 다음 단어들을 듣고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학생, 회사원, 가방, 회사, 대학원, 중국어, 전공

태국, 일본, 컴퓨터, 관광안내원

빵, 음식, 요리, 프랑스, 요리사

2. 세종 한국어 3 P18 쪽에 있는 듣고 말하기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화인지 예측해보세요.

3.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말할 때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하는지 생각해보고 밑에 써보세요.

위에 1번 질문지처럼 부교재를 만든 이유는 일단 단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예를 들어 나와 나의 친구들은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한국에서 3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한국어를 잘 읽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금 ‘뽕뽕뽕’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말해본다고 치자. 그럼 친구는 한국어가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저 단어를 내가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하게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보는 단어이고 처음보는 단어이다보니 말해본적이 없고 말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교재에 1번 문제를 넣은 이유는 외국인 학습자가 정확하게 단어를 말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연습하기 위해서이다.

‘아는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말할 수 있는 만큼 들린다’라고 생각한다.

2번 질문지를 만든 이유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경우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상황에 따라 같은 문장이더라도 다른 뜻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천천히 읽고 생각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암시해두고 들을 수 있다. 듣기가 부족할 경우 상황을 예측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듣고 이해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듣기를 하기 전에 듣기 전 활동으로 상황을 예측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3번 질문지를 만든 이유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했었다. 했다. 할 것이다. 등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정확하게 자기가 시제 표현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쓰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듣기 전 활동으로 의식적으로 시제를 인지하고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수업방식은 듣기 전 활동을 하고 여기서 1번 질문지는 정확하게 말 할 수 없다면 정확하게 말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번 질문지의 경우 너무 엉뚱한 맥락으로 상황을 인식하면 오히려 듣기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을 예측했을 경우에는 따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듣기 활동에 들어가거나 너무 터무니 없는 상황을 예측했을 경우에는 상황을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다.

3번 질문지의 경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한 번 짚고 듣기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1. 세종한국어3